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6년 10월

선교편지 제 94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0월 2일 주일에 디고스 예일 교회 인근 해변에서 교회 창립이후 세번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년 25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을 앞두고 4주간의 세례자 교육, 기도회 및 간증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는 귀한 시간을 경험 했습니다. 25명의 세례자 모두가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감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특히 교인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병약한 두 분이 (64세, 67세) 세례를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교회가 건축된 이후 첫번째로 결혼식을 한 신부의 눈물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함께 기뻐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냥 철없이 보였던 19명의 대학생들이 마침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 받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고스 예일 교회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례식을 위해서 지프니 차량을 렌트하여 세례자, 찬양팀 및 교우들이 해변으로 이동 하였고, 천막과 테이블과 풍성한 음식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세례식을 진행하는 동안 찬양팀은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례자들을 축복하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세례식 이후에는 이곳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여기는 '레촌 바보이' (통돼지 구이)와 푸짐하게 준비한 만찬을 모두 함께 나누며 기쁨을 더 했습니다.


이곳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는 내 자신이 '제자 훈련을 받고',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말씀에 대하여 깊은 이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19) 이 말씀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엄중한 말씀인지 이제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전 3:7)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세례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5. 성령 충만, 안전, 건강과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디고스 예일 교회와 인접한 '익핏' 지역은 저희의 또다른 땅 끝이고 선교지입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가 건축이 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지가 아직 2년도 안되기 때문에 교회가 위치한 '띠구만' 지역만을 감당하기에 도 쉽지 않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희의 기도와 방향은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매주 토요일이 되면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기도 바쁘지만, 제일 먼저 익핏 지역을 방문하여 맡겨주신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익핏 초등학교 교정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익핏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고등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나무 그늘 밑에서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소규모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3일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소그룹이 아닌 전교생을 대상으로 익핏 초등학교와 익핏 고등학교에서 선교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익핏 초등학교에서 450여명의 어린이와 학부모, 그리고 오후에는 500여명의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를 초대하여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감사한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익핏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을 대표와 각 학교장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익핏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토요일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학교 교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익핏 초등학교가 주일에는 '익핏 교회'로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익핏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분주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막상 주일에는 모두 함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예배 처소를 놓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에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하여 분주하게 돌아 다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교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익핏 지역과 학교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헌신된 후원자를 통하여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익핏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중에서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워 최소한의 학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여 극빈자로 분류된 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매우 적은 학비이지만,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학교도 어려움에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의자와 음향 장비는 학교에 기증을 하여 주중에 학교 용도로 사용하고, 주일에는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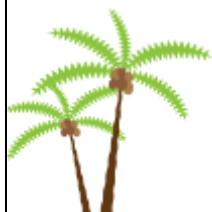
아직 선교지에서는 생소한, 현지 학교와 연결된 형태의 교회이지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11월 첫 주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기 선교팀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익핏지역까지 방문하여 말씀과 의료, 구제, 스포츠 선교등으로 닫힌 길을 열어 놓고, 많은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 오늘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태동하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주의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 135:2,3)**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